KAISA 한국AI반도체팹리스산업협회	보 도 자 료	https://www.k-fabless.com/kr

보도 일시	2026. 11. 24.(화)	배포 일자	2026. 11. 25.(수) 17:30 이후
담당 부서	정책기획본부 전략기획실	책임자	실장 이지선 (031-706-9777)
		담당자	PM 이남희 (031-706-9777)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AI반도체팹리스산업협회'로 새 출발
'2026 K-팹리스 테크포럼 및 제4회 반도체팹리스인의 날' 개최

- 팹리스 산업 대표성 계승... AI·SW 융합을 통한 회원사 성장 기회 확대
- 협회 명칭 변경 이후 첫 공식 행사로 AI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도약 모색
- 피지컬AI 시대 대응 기술교류 및 반도체 팹리스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한국팹리스산업협회(회장 김경호)가 '한국AI반도체팹리스산업협회(KAISA)'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팹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AI·SW 융합 생태계 육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협회는 지난 10월 13일 임시총회에서 명칭 변경을 의결하고, 11월 24일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영문 명칭은 'Korea AI Semiconductor Fabless Industry Association'이며, 약칭은 'KAISA'로 변경됐다.

이번 명칭 변경은 AI반도체와 주력 반도체팹리스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향해, 기존 팹리스 산업을 중심으로 축적해 온 전문성과 대표성을 계승하는 동시에 산업전반의 AI 전환(AX) 확산과 회원사의 사업영역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개별 칩의 성능 경쟁을 넘어 하드웨어·소프트웨어·AI 모델·플랫폼을 결합하는 생태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피지컬AI의 확산으로 반도체와 AI·SW 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협회에서 실시한 회원사 AX 수요조사에 따르면, 제품·서비스에 AI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약 65.3%로 나타났고, 향후의 계획까지 감안할 경우 8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이러한 산업 변화에 대응해 기존 팹리스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AI·SW 기업 및 산업별 수요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정책지원, 기술개발, 검증·실증,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 이르는 종합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명칭 변경 이후 첫 공식 행사… AI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도약

협회는 명칭 변경 이후 첫 공식 행사로 11월 25일 그래비티 조선 판교에서 '2026 K-팹리스 테크포럼 및 제4회 반도체팹리스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성남시가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팹리스, 솔루션을 넘어 플랫폼 생태계로!'를 주제로, 정부 및 지자체, 반도체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협회의 새로운 출발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피지컬AI 시대에 대응한 산업 간 기술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반도체 팹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업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피지컬AI 미래대응 기술교류회'에서는 LG전자 생산기술원, 마음AI, 딥엑스 등 피지컬AI 분야 주요 기업이 참여해 최신 기술 동향과 산업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반도체와 AI·SW 간 융합 및 미래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2부 '제4회 반도체팹리스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내 반도체 팹리스 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 3점을 포함한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 표창 총 19점을 수여했다.

김경호 회장은 "이번 협회의 명칭변경은 반도체 설계산업을 대표해 온 협회의 정체성을 계승하면서, AI 시대에 맞춰 회원사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 현장의 수요가 정부 정책과 지원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도체·AI·SW 생태계를 연결하는 종합지원기관으로서 회원사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 반도체 팹리스 산업의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반도체와 AI·SW 산업 간 협력을 확대해 피지컬AI 시대를 선도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끝>